

스코틀랜드의 무형유산 NGO와 지역, 지방, 국가 차원의 정체성 확립 기여도

조앤 오르

스코틀랜드 박물관협회 대표

개요

2014년은 스코틀랜드에 중요한 한 해다. 스코틀랜드 귀향 캠페인인 ‘홈커밍’ 행사가 열리고 영국연방 경기 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9월에는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강력한 민족 정체성을 지닌 스코틀랜드 국민이 이 국민투표가 열리기까지 긴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민족 정체성을 세계에 투영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차원이 낮음으로써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현존하는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그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위스키와 골프와 고성으로 유명하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활기찬 생활양식을 이룩한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옹호, 세틀랜드, 웨스턴아일랜드 등 섬이나 스코티시보더스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든 공동체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쳐 지역, 지방, 국가 차원의 정체성을 함께 어우르면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 전통과 관습을 지니고 있다. NGO는 이들 문화 요소의 보급에 가장 중심에 있으며, 그 가운데 박물관은 공동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사례

에 불과하다. 박물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절반 이상이 NGO에 참여하는 봉사자들로 구성된다.

스코틀랜드 박물관협회는 스코틀랜드 전통 문화·예술(Traditional Arts and Culture Scotland) 단체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스코틀랜드 NGO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가능성 있는 메커니즘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은 최근 국민투표가 실시되기까지 뜨거운 화두였다.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영국과 독립 스코틀랜드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느 쪽에 규정하길 원하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사람에 대한 정의는 민족성이라기보다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일하면서 스스로를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규정하길 원하는 지리상의 위치를 포괄한다. 스코틀랜드 국민이 분리 독립 국민투표에 찬성할지, 나머지 영국연방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의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이 반드시 장소나 장소 의식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정체성을 띠 수 있고, 이 경우 어떤 성(姓)을 사용하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같이 관습 문화에서 많은 부분이 관련돼 있다. 이들 정체성은 국민성 개념과 나란히 공존하고, 개인은 가족·마을·지역 등 한 곳 이상의 여러 지역 출신으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 이들 정체성은 또 상호 배타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지 등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

무형유산(ICH) 관련 NGO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든 단위 현장에서 정체성 확산과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일조하기 위해 맡은 역할에 적극 임하고 있다.

출신지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지도를 펼쳐서 시작하겠지만 지도의 지명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경계와 영역 역시 사람들이 그어 놓은 것이다. 결국 자신의 출신지에서 유명한 것에 빗대어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정체성을 설명할 때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화 활동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자신을 묘사할 때, 특히 전 세계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위스키 제조나 골프 또는 전통의상인 킬트와 같은 관습을 언급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 같은 어떤 것과 관련시켜 평상시에 스스로를 묘사할 가능성도 높다. 언어나 전통으로 규정되는 특정 인종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지역 합창단이나 전통 스코틀랜드 무용 강습 또는 뜨개질 모임에 소속된 것과 같은 단순히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데 NGO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와 그 밖의 영국연방 NGO는 수많은 차원에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전달하는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와 그 표현 방식은 정체성을 규정하고 묘사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구심점의 하나다.

문화 참여를 위한 매개체는 국가 채널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법·제도상의 책임이 있고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해당 문화 서비스가 명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스코틀랜드의 문화유산 부문에는 수많은 NGO가 활동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의 공급 및 개발에서 국가가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이들은 주로 공동체가 주도한다. 그럼 다음 문화 공급이 갑자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데 지방정부 당국의 대규모 서비스가 거의 부재한 수준의 아주 기본에 그친 지역 인프라만 작동된다. 여기서 인프라는 문화 공급이 공동체 주도로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공동체가 문화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자원봉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문화 전달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할 용의가 있다. 박물관 분야의 인력은 전체의 50% 이상이 자원봉사자다. 이처럼 문화 공급의 창출과 전달에서 공동체의 대규모 참여는 다른 문화 및 유산 분야에도 반영된다. 현장의 인프라 역시 문화 공급을 차지하는 수많은 NGO가 참여하는 등 공동체 주도 접근 양상을 보여 준다.

박물관은 정체성 또는 정체성들의 전시장이자 정체성 탐구를 위한 발판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NGO라는 강력한 인프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가 공동체이며, 이는 지역 및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 개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역 인프라가 부재한 실정이고 하일랜드 및 아일랜드 등 공동체가 지리상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개발 대신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라는 다른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형식에 그친 인프라보다 NGO를 위한 더욱 적절한 접근법이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포럼의 개최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스코틀랜드 박물관협회(MGS), 예술 분야에서는 스코틀랜드 자진예술(Voluntary Arts Scotland) 등 조직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NGO 간 네트워크 구축 현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 600만 미만의 작은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용이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강력한 파트너십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는 공동체가 문중이나 혈연 중심으로 정체성을 고수하는 '씨족(clan)' 제도에 기반을 둔 확고한 가문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이 있다. 대개 씨족이나 대가족은 씨족의 우두머리가 거주하는 특정 장소로 그 신원을 파악한다. 씨족 이름이나 '타탄(tartan)'의 고유한 디자인 등 가문을 둘러싼 전통은 지속 이행되고 있다. 이들 가문은 관습인 가문의 정기 행사를 위해 킬트 제작을 의뢰, 대다수 마을의 '킬트 장인'을 지탱하고 있다.

현존하는 ICH 관습과 관련해 다양한 NGO가 있다. 이들은 때때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최근 MGS는 NGO와 ICH 연행사 일부를 한자리에 모아 협력이 가능한 잠재 분야가 있는지 모색할 목적에서 다른 지원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전통 음악과 춤 분야의 개인 연행사 및 NGO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예술·문화(TRACS) 단체다.

MGS와 TRACS는 한자리에 모여 여러 조직과 예술 형태에 걸쳐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지 탐구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스코틀랜드 인버루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 시범 행사는 참여자들이 공유된 콘텐츠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추가 행사가 계획되었고, 바로 다음 행사는 스코티시보더스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한 문제는 스코티시보더스에서 여름 내내 개최되는 '라이딩 오브 더 마치스(riding of the marches) 등 주요 ICH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또한 다른 연행자들이 공유된 ICH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행동 연구를 계획한다. 인버루리의 시범 행사는 2003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내용을 연행자에게 소개하고 협약이 그들의 작업과 관련 있는 유용한 체계인지를 파악하는 자리이자 매개체들을 아우르는 작업 성과를 공유하는 발판이 되었다. 전통 음악, 스토리텔링, 춤, 박물관 등 분야의 모든 연행자는 협약을 열렬히 수용하였다. 이는 향후 세미나 개최의 청신호가 되었다. 행동 연구는 다른 영역의 연행자들이 장소나 일련의 사물 등 공동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로 인해 해당 콘텐츠에 다른 시각을 불러일으키는지, 이것이 새롭게 공유된 정체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1999년 이후 스코틀랜드는 자체 의회를 둔 공동체가 되었고, 고유문화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권력 이양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정체성 규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스코틀랜드가 자신감 넘치는 대외 지향 독립 공동체라는 인식이 부활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 투자를 보호해 왔다.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공유된 스코틀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많은 스코틀랜드 NGO가 표방하는 다채롭고 심도 있는 다양성은 포용되지 않고 피상의 정체성에만 치중하여 편협한 지역주의의 전형을 보이고 내부 지향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스코틀랜드는 정체성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문화 관례 덕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여러 차원에서 정체성을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정체성은 공존할 수 있으며 배타 성격이 아니라는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쩌면 스코틀랜드 문화에서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일부 문화 요소에 대한 신뢰성과 가시성의 증대 확인과 새로운 연계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찬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은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독립 스코틀랜드라는 개념의 재도입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